

“안에도 더워요”... ‘폭염노출’ 실내 작업자도 휴식 의무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휴식제공, ‘폭염노출’ 실외→실·내외 작업하는 경우

앞으로 실외뿐 아니라 물류센터 등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 작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

전보건법(산업법) 하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폭염에 직

접 노출되는 실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휴식 의무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폭염 시 실외 온도와 비슷한 고온의 환경에서 일하는 물류센터 등 실내 작업장의 경우 휴식부여 의무에서 제외돼 실내 작업장의 근로자를 온열질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고용부는 관련 규칙을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해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실외뿐 아니라 해당 실내 작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휴식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휴식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에는 ‘열사병 예방가이드’를 참조해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

가 매 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들이 폭염 시 일하는 장소와 관계없이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규칙 개정으로 폭염에 노출된 실내 작업장의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추석 귀성 SRT 승차권,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비대면 예매



SR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추석명절 SRT(수서고속철도) 승차권 예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석 승차권 예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예매 없이 100% 비대면으로 실시된다.
예매 대상은 추석 특별수송기간인 내달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운행하는 모든 SRT 열차 승차권에 해당한다.
예매 첫날인 23일에는 만 65세 이상 고령

첫날 경로·장애인 우선예매...25일 까지

자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예매를 실시하며, 24일과 25일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
첫날 우선 예매는 SR 회원가입을 완료한 만 65세 이상 경로 고객과 사전접수에 참여한 장애인 고객만 온라인 홈페이지(etk.srail.kr)로 예매할 수 있다. 단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SR 회원가입을 완료한 승객에 한해 예매가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로·장애인을 위해 전화예매도 진행한다. 일시적 통화량 증가로 상담원 연결이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온라인(PC, 모바일)을 통한 예매를 권장한다고 SR은 밝혔다.
오는 24일과 25일부터 각각 진행되는 경부선과 호남선 예매에는 경로·장애인을 포

함한 모든 국민이 PC나 모바일 등을 이용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추석 명절 SRT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SRT 추석 명절예매는 사전에 SR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편도 1회당 6매, 1인당 왕복 최대 12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예약한 승차권은 25일 오후 3시부터 28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해야하고, 기한 내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예매기간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오는 25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 SRT앱, 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SR은 승차권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승객들을 위해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김재환기자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 4000건

임시소방시설에 가스누설경보기 등 3종 추가



소방청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현행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 4008건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총 319명(사망 57명, 부상 2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임시소방시설(소화기·간소화장치·간이피난유도선·비상경보장치)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등 3종이 추가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도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고, 피난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하층이나 무장층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목했다. 용접 불티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화포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간이소화장치는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건설현장의 지하1층과 지상1층에는 상시 배치해야 한다. 그간 확성기를 주로 사용하던 비상경보장치를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 형태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가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용접·용단 및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 같은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청은 행정 예고 기간(7월28일~8월17일)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경기도 이전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사고 이후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대책을 반영해 개선하는 만큼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화재위험작업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지도·감독하에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치킨에서 발견된 담배꽂초 튀김...사장은 ‘나 몰라라’”

작성자 “환불 받았지만 매장 태도에 화나”

배달시킨 치킨에서 튀겨진 담배꽂초를 발견했다는 사진과 글이 온라인 상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경남 진해의 한 프렌차이즈 치킨집에서 담배꽂초를 같이 튀긴 치킨을 받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순살치킨을 시켰는데 담배가 같이 왔다”며 “매장에 전화해 따지고 배달 앱을 통해 환불을 받았는데 매장 태도에 화가 난다”고 적었다.
A씨는 “매장 사장님 두 분은 담배를 안 피운다고 나 몰라라 하더니 감자튀김 아니냐며 먹어보라 했다. 그러고는 전화 끊을 때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했다”고 항당해했다.
화가 난 A씨가 “이걸 어떻게 먹냐”고 물으니

“그것만 속 떼고 맛있게 드세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식약처에 신고할 테니 결과 나오면 얘기하자고 말했고 치킨집 사장은 ‘고객님 저희 지금 장사하지 말라는 겁니까라며 화를 냈다’고 전했다.
해당 치킨집 사장은 직접 치킨을 확인한 후 담배가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는데, 제대로된 사고는 없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가 “본사와 식약처에 신고할 테니 결과 나오면 얘기하자”고 말하자, 사장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다음날 본사에 연락하니 본사 측이 “그 지점 사장님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치킨을) 수거해 가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믿을 수 없어 식약처에 맡겨서



검사하겠다고 했다. 이미 치킨 먹은 후에 발견했고 요즘 같은 시대에 저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 가면 신고가 가능하다. 이물질은 식품 등의 제조 유통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모든 물질을 말한다.
뉴시스

나주서 변압기 제조업체 직원 감전

심폐소생술로 의식 회복

9일 오후 1시 34분께 전남 나주시 한 산업단지 내 변압기 제조업체 직원 A(57)씨가 감전됐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의식·호흡을 회복, 현재 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동료 직원은 경찰에 ‘A씨가 변압기의 온도 상승 시험을 하고 있었다. 전력 공급 차단이 안된 다른 변압기에 의해 감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나주=송준표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